

IFES

뉴스레터

2023년 11월호

IFES NEWSLETTE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뉴스레터
14호(11월)
목차**

연구활동

1. 학술활동	3
2. 교수 연구활동	11
3. 북한·국제 정세 동향	14

연구소 소식

1.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19
2. 제2기 IFES 북핵아카데미	22
3. 도서관 소식	23
4. 연구소 동정	24
5. 언론 속의 IFES	25
6. 예정사항	27

연구활동

연구활동

1. 학술활동

국제학술회의

경남대, 소카대(일본)·중국문화대(대만) 공동 '2023 평화포럼' 개최 (2023. 10. 25.)

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는 10월 25일(수) 일본 소카대 글로벌 스퀘어에서 일본 소카대학교(Soka University), 대만 중국문화대학교(Chinese Culture University)와 공동으로 '2023 평화포럼(Peace Forum)'을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박재규 총장은 스즈키 마사시(鈴木將史) 소카대 총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평화포럼의 발전방향 ▲3개국 우호협력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동아시아 평화구축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평화포럼은 '협력과 상생으로의 길: 힘과 상호의존을 넘어서(Ways to Promote Cooperation and Coexistence: Beyond Power and Interdependence)'라는 대주제 아래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박재규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사회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상호의존성이 상호보완적 협력과 공존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평화포럼이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세션에서는 소카대 Luckhurst, Jonathan 교수가 '글로벌 정치 속 협력, 상생, 경쟁적 다원주의'를 주제로 기조연설 했으며, 이후 소카대 Lenz, Hartmut 교수, 중국문화대 Wang, Shun-Wen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병철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소카대 Luckhurst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21세기의 국제정치가 상호의존에서 탈피해 경쟁적 다원주의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기존의 다자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가 파편화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 증가로 인해 협력, 공존, 상호의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2세션 '협력과 공존 촉진 방안'에서는 북한대학원대 김정 교수가 '경제적 상호의존의 무기화에 맞선 민주적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여기서 김 교수는 "중국이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한다면 미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바탕으로 유사한 민주국가 간 협력이 강화돼 경제적 집단 역지력을 갖춘 반중 포위망을 형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 학술활동

이어 중국문화대 Kuo, Jing-houng 교수가 ‘대만, 마카오, 중국의 포스트 팬데믹 시대 청소년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대만과 마카오, 중국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사회적 지원,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 소카대 Hanssen, Ulv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상범 교수를 포함한 세션 참여자 간 토론도 진행됐다.

경남대, 소카대, 중국문화대는 동아시아 평화연구 활성화 및 3개국 간 학술교류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22년에는 미중 전략적 경쟁과 영향(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Its Impact)이라는 대주제로, ‘한국의 관점’, ‘일본의 관점’, ‘대만의 관점’의 세 세션을 제주도에서 진행한 바 있다.



세미나

일본 게이오대 공동 라운드테이블
(2023. 10. 26.)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0월 26일(목) 일본 게이오대와 라운드테이블을 가졌다.

회의에는 경남대 측에서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 이병철, 김상범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참석하였다. 일본 측에서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 히라이 히사시 전 연합통신 지국장, 이케하타 슈헤이 NHK 지국장, 미치시다 니루시게 정책연구대학원 대학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관계, ▲북한 핵무기(핵 미사일) 개발 현황 및 전망, ▲중국·대만문제와 일본과의 관계, ▲한·일 관계 쟁점과 해결 전망, ▲북·러 군사협력 평가 및 전망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세미나

중국 산둥대 중일한협력연구센터 세미나 (2023. 10. 9.)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2023년 10월 9일 중국 산둥성 정부 외사판공실에서 주관하고, 산둥대학교 중일한 협력연구센터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연구소에서는 이관세 소장, 이상만 교수, 최영준 교수가 참석하였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양무진 총장이 참석하였다.

중국측에서는 닝푸쿠이 전 주한 중국대사, 류창 산둥대 한국학 과장, 우림걸 산둥대 중일한협력연구센터 소장, 필영달 산둥대 동북아학원 원장, 왕부동 산둥대 사회과학원 연구원이 참석하였다.

중국 산둥 제남 산둥호텔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하여 “개막식 및 기조·주제발표(1부),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2부)”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토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중·일 : 북·중·러” 대립구도의 신냉전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많은 우려를 갖고 있음. 이는 한·중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 특히 중국은 북·중·러 연대 문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신중한 입장과 관여를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동북아 정세 변화 상황에서 한·중관계의 복원과 발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급하고 중요함. 다각적인 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함.
- 러·우 간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핵 고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러·북 간 군사협력 등 연대강화는 동북아 질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임. 이럴 때일수록 한·중은 전략대화 및 정부·개인 차원의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한·중의 긴밀한 관계를 통한 균형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모색, 평화국면을 마련해야 할 것임.



세미나

중국 복단대 라운드테이블 (2023. 10. 1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2023년 10월 11일 ‘중국 복단대 국제관계문제 연구소’에서 ‘복단대 조선반도 연구소’와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연구소에서는 이관세 소장, 이상만 교수, 최영준 교수가 참석하였고, 중국측에서는 정계영 복단대 조선반도연구소장, 웨유준 복단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손더강 복단대 중동문제연구소장, 웨이종유 복단대 미국연구소 교수, 장지아당 복단대 남아시아센터 교수, 상리유 복단대 교수, 왕싱싱 상해 외국어대 교수(아태연구센터), 유소 상해 정법대 아태연구센터 연구원, 방수옥 복단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한반도 정세 변화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전망과 함께, ▲향후 한·중 관계 발전방안에 대한 상호 질의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요 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북·러 협력 동향 및 북·중·러 연대 구상 가능성에 따른 변화 및 대응
- ② 인도·태평양 협약의 변화 가능성
- ③ 한국 외교 방향 - 대만 문제, 남중국해에 대한 입장 등
- ④ 한·중 경제 협력의 문제점 및 전망
- ⑤ 중동사태에 대한 한국의 분위기 및 입장
- ⑥ 한·중 간 문화·인문 교류 현황과 문제 및 인식의 개선 방안 등
- ⑦ 한·일 관계 전망 등



세미나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연구소 방문 간담회 (2023. 10. 28.)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2023년 10월 28일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연구소' 연구진과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소에서는 이관세 소장, 이상만 교수, 최영준 교수, 김상범 교수가 참석하였고,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연구소 측에서는 판언스 부소장, 추동메이 동북변강연구실 부주임, 주첸 북부변강연구실 부주임, 거샤 오후이 동북변강연구실 조리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상호학술교류 방안, ▲한·중관계 평가와 발전 방향, ▲북·러 간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상호 질의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요 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한·중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 필요성 및 방안
- ②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전략경쟁 심화 문제
- ③ 미·중 전략경쟁과 북·러 밀착 속 한·중 협력 방안



공동연구

제4차 발표회

- 일 시: 2023. 10. 4.(수) 10:00~11:30
- 장 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평화관 1층 대회의실 및 온라인 Zoom 화상 병행
- 발표자: 이웅현(고려대 세계지역연구소 연구교수)
- 주 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 정책
- 참 석
 - 내 부: 이관세 소장, 조진구 교수, 이병철 교수, 임을출 교수, 김상범 교수, 정재욱 교수, 최영준 교수
 - 외 부: 이웅현 고려대 세계지역연구소 연구교수, 전경주 KIDA 연구위원

공동연구

제5차 발표회

- 일 시: 2023. 10. 16.(월) 14:00~15:30
- 장 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평화관 2층 국제회의실
- 발표자: 김숙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주 제: 일본 행정책의 쟁점과 과제
- 참 석
 - 내 부: 이관세 소장, 조진구 교수, 이상만 교수, 임을출 교수, 정재욱 교수
 - 외 부: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

제2차 삼청포럼 (2023. 10. 30.)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0월 30일(월) 삼청동 소재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제2차 삼청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이웅현 연구교수(고려대 세계지역연구소)가 “동북아 평화와 러시아”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웅현 교수는 발표에서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 존재감 확보와 연해주 및 태평양 진출을 통한 경제개발”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스스로의 정치적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한 시기는 제2차 북핵위기였으며, 이 시기 추진되었던 6자회담은 러시아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동북아시아 안보문제 논의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부근의 3개 군관구가 가담하고 있지만 러·우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 동북아시아에서 자국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군사분쟁이 발생한다면 러시아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국제정세에서 이웅현 교수는 한국은 추상적이지만 ‘북방정책 III’을 선언하고 전개함으로써 외교적 긴장이 군사적 위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972년 닉슨의 중국방문과 1988년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외교처럼 기존의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외교적 상상력’을 발휘해 한국의 국익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포럼에는 대학교수, 법무법인 전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관련 주제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2. 교수 연구활동

내부 교수진

이상만 교수

학술활동

1. 『한중사회과학연구』 제21권 4호 연구논문 게재
- 제목: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 중국과 남북한의 “일대일로” 협력 가능성 연구

언론활동

1. 2023. 10. 18.(수), 중국망(中国网), “서로 다른 문명을 융합시켜 아름다운 미래로 향하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기고
2. 2023. 10. 23.(월), 뉴스1, “러·북 ‘밀착’ 행보에서 다시 주목받는 ‘중국역할론’ 인터뷰

조진구 교수

언론활동

1. 2023. 10. 5.(목), YTN 출연, “[뉴스큐] 일, 오염수 2차 해양 방류…외교적 파장 이어지나?”
2. 2023. 10. 6.(금), 연합뉴스TV 출연, “[뉴스포커스] 런던의정서 총회서 오염수 논의…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

임을출 교수

학술활동

1. 2023년 한국자치행정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세미나 주제 발표
- 날짜/장소: 2023. 10. 20.(금),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
- 주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김상범 교수

학술활동

1. 2023 하반기 경남대학교 현장실습형 통일심화 교육 프로그램 패널
- 날짜/장소: 2023. 10. 12.(목)~13.(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 통일부 주최 2023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패널
- 날짜/장소: 2023. 10. 14.(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 교수 연구활동

박서화 교수

학술활동

1. 2023. 10. 16.(월), IFES Brief, “북한의 핵무력정책 헌법화의 의미”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 게재
2.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북한혼종사회연구단(CHNK) 북한사회포럼 주제발표
 - 날짜/장소: 2023. 10. 26.(목), 동국대
 - 주제: 북한의 「법제정법」과 주요 사례

최영준 교수

학술활동

1. 2023. 10. 18.(수), IFES FORUM, “A Comment on the Current Unification Policy of South Korea: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 게재
2. 순천향대 학생 대상 “MZ 세대와의 대화” 특강
 - 날짜/장소: 2023. 10. 24.(화), 순천향대
 - 주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구동존이

문미리 교수

학술활동

1. 『한국과 국제사회』 제7권 5호 연구논문 게재
 - 제목: K-컬처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외신 보도를 중심으로 ([논문보기\(클릭\)](#))

초빙/석좌교수

곽태환 초빙석좌교수

학술활동

1.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제44회 정책포럼 주관
 - 날짜/장소: 2023. 10. 28.(토), 글로벌평화재단(Global Peace Foundation)
 - 주제: “한반도 문제 해법: 러시아의 새로운 역할은”

언론활동

1. 2023. 10. 8.(일) 통일뉴스, “핵 무력 정책, 헌법에 명시하게 된 동기는?” 칼럼 기고

김광운 초빙석좌교수

학술활동

1. 독일 튀빙겐대학 한국학과 주최 특강
 - 날짜/장소: 2023. 10. 18.(수), 독일 튀빙겐
 - 주제: No Record, No History
2.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 주최 특강
 - 날짜/장소: 2023. 10. 20.(금), 독일 베를린
 - 주제: 북한 출판 자료의 연구에서의 활용 가능성 평가
3. 중국 해양대학 특강
 - 날짜/장소: 2023. 10. 26.(목), 중국 칭다오
 - 주제: 북한 연구와 북조선실록 편찬 간행의 의의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학술활동

1. 아산 정책 포럼 토론
 - 날짜/장소: 2023. 10. 16.(월), 아산 정책 연구원 강당
 - 내용: “북방 3각, 남방 3각” 토론
2. 국립외교원 신입 외교관 대상 강의
 - 날짜/장소: 2023. 10. 18.(수), 국립외교원
 - 주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외교관이 되라

언론활동

1. 2023. 10. 9.(월), 한국일보, “[안호영의 실사구시] 보스토치니의 항배: 철저히 대비해야” 제하에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
2. 2023. 10. 18.(수), 코리아 타임스, “Steeling ourselves against post- Vostochny”제하에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

권기원 초빙교수

언론활동

1. 2023. 10. 12.(목), 아주경제, “[권기원 칼럼] 美中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 기고

3. 북한·국제 정세 동향

북한

• 10/2(보도일): 김덕훈 내각총리, 평안남북도 농업부문 사업 현지요해

- 평원·속천·룡천·염주·선천군 등 여러 군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실태 파악 및 농사 성과적 결속을 위한 각급 농업지도기관 지휘 강조
- 김정은 위원장의 8.21 질책* 이후 김덕훈 내각총리의 현지 방문 미보도에 따라 인사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농업을 비롯한 금년도 사업 마무리 시점에서 총리 역할 필요 등의 이유로 유임된 것으로 판단

* “내각총리의 무책임한 사업태도와 사상관점을 당적으로 똑똑히 검토할 필요” (8/22 노동신문)

• 10/5: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화상회의로 진행

- ▲3/4분기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 총화 및 연말 목표 달성 강조 ▲육아정책, 국토관리, 생태환경 보호사업 강조 ▲농업부문 농기계 가동률 최대화, 영농작전·지휘 주도 세밀화하여 ‘알곡생산목표’ 무조건 달성 강조

• 10/9: 북한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관련 첫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외신 인용 방식으로 이번 ‘무장 충돌’ 원인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범죄 행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유혈 충돌 종식의 근본 출로가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건설’에 있다고 밝힘.

• 10/10: 북한 당 창건 78주년 자축

- 인공기 게양식, 경축공연, 야회 등 진행
- 노동신문 1면에 ▲김일성·김정일 ‘업적’ 선전 ▲김정은 10년 집권 성과 선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에 핵무력 강화 정책 기조 명시 등 거론

• 10/1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 전원회의 실시

-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중앙선거지도위원회 조직▲금융감독법·살림집 관리법 심의채택 ▲중앙재판소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

미국

- **9/29 미 국무부, “북이 나아갈 유일한 길은 외교”**
 -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교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
 - 중국의 협조로 인해 북한은 트레비스 킹 이병을 단둥으로 추방했고, 이를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 등이 신병을 인도·확보
- **10/13: 북한이 러시아에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 제공 정황 사진 제시**
 - 존 커비 미국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및 한국 외교부 추가 제재 예고
- **10/20: 美 전략폭격기 B-52H 한반도 착륙**
 - 미 전략폭격기 B-52H의 국내 착륙은 이번이 최초이며, 올해 7월 미 켄터키 전략핵잠수함(SSBN-737)의 부산 입항에 이어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
- **10/20: 미국 국방부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 발간**
 -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달성을 목표로 국력을 축적하고 있으며, 국제질서를 중국의 거버넌스와 국익에 부합하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함.
 -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강압 강화, ▲중국인민해방군의 핵무기 및 우주역량 강화, ▲대만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강화, ▲러시아와의 제휴 심화 등을 거론하였음.

중국

- **10/9: 중국 내 탈북민 600여명 강제 복송**
 - 한국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논의에 적극 참여 중” 항의
 - 대북 단체들에 의해 1,000여명 추가 복송 가능성 제기
- **10/17~18: 중국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 개최, 푸틴-시진핑 3시간 회담**
 - 130여 개국 대표 참석
 - G7 등 주요 서방국가들이 불참함으로써 한국정부도 이에 동조하여 한국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10/13). 단, 민간기구들은 참여
 - 푸틴과 시진핑은 美 주도 제재, 디커플링 반대 논의를 통해 반미연대 과시

러시아

• 10/5: 신형 핵 추진 미사일 시험 성공 발표

- 북한과의 회담으로 군사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 고조된 가운데 발표

• 10/16: 러시아도 중국에 이어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 10/16: 국방부 “북 → 러 컨테이너 적재량은 포탄 수십만발 분량”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

- 존 커비 미국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및 한국 외교부 추가 제재 예고

• 10/18: 러시아 하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만장일치 비준철회

-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CTBT는 대기권, 우주공간, 지하 등 모든 장소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러시아는 같은 해 이 조약에 서명하고 2000년 비준했으나 미국은 이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음.

- 바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 "미국의 부정행위와 냉소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면서 "미국이 오랜 기간 이 조약의 비준을 미뤄 힘의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설명

•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방북 (10/17~10/19)

- 10/18: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일행 평양 도착, 연회 진행

- 10/19: ▲김정은 접견, “굳건한 정치적 및 전략적 신뢰관계에 토대하여 복잡다단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며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 쌍무적관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관심사로 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이 교환되었으며 견해일치” ▲북러 외무상(최설희-라브로프) 회담, ①9월 북러정상회담 합의에 기초해 북러 관계를 새 시대와 현 정세의 요구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울 것, ②경제·문화·선진과학기술 등 각 분야 교류·협력의 정치외교적 추동 방향·방안 토의, ③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정세,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서 북러 공동행동 강화 의견교환 및 견해 일치 확인, ④북러 외무상 간 2024~2025 교류 계획서 체결. ⑤푸틴 방북 일정 등

*16-18일 중국 방문 직후 북한 방문

연구소 소식

한
한
한
한

1.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펠로 최종발표회 및 수료식 (2023. 10. 3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0월 30일(월)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2023-3차 펠로 최종연구발표회와 펠로십 수료식을 개최했다.

최종연구발표회에서 안드레이 꼬브시(Andrey Kovsh) 펠로는 “북한과 인도-태평양 지역 연계: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함의”를 주제로 북한의 대 아세안·남아시아·아프리카 외교에 대한 국가별 현황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연계하는 데서 지니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향후 전망에 관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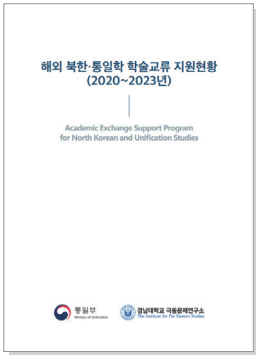
발표회에는 이관세 소장, 이상만·김상범 펠로 주임교수, 딘 올렛·문미리 교수, 비앙카 트리포이(Bianca Trifoi) 펠로 등 펠로십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참석해 발표자의 연구 내용에 대해 토론했다.

이어 진행된 펠로십 수료식에서는 꼬브시 펠로에게 수료패가 전달됐다.

꼬브시 펠로는 “지난 6개월은 건설적이고 도전적이었으며, 매우 생산적인 시간이었다”라고 펠로십 프로그램 수료 소회를 밝혔으며, “극동문제연구소와 계속 교류·협력하며 다양한 북한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현황(2020-2023) 결과보고서 국·영문 발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해외 한반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해 온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사업목적, 사업구성 등의 소개와 함께 △펠로십, △해외 정책·학술 연구지원, △석·박사 학위과정 등 사업별로 추진 결과를 정리하였다.

“펠로십”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10개국에서 31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과정은 6개월 내외로 진행되며, 해외의 학계, 언론계, 정·관계 등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연구자 등을 국내로 초청, 다양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통일관련 분야 연구 및 학술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정책·학술 연구지원”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8개국에서 12개 대상을 선발하여 지원하였다. 해외 소재 국책기관, 싱크탱크, 해외 현지 연구자를 대상으로 북한·통일 분야 연구 지원을 통해 각 나라의 한반도 및 북한·통일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외 연구자들 간 교류의 장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석·박사 학위과정”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5개국에서 6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해외 신진 연구자들이 한국 내 체류하며 북한·통일학 관련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 정규수업을 포함해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이 보고서는 해외의 전문가들이 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해외의 한반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2024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펠로십 모집

연구소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펠로십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1. 연구주제 : 북한 및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등에 관한 사항

2. 선발인원 : 펠로십 ○명

3. 프로그램 기간 : 6개월

4. 제한요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불가

- 과거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지원금을 취득하여 연구를 수행한 사람
- 대한민국의 타 기관이 제공하는 지원금 혜택과 동시 중복 수혜 불가

5. 신청시 유의사항

- 연구자는 연구기간 중에 반드시 대한민국에 체류
 - 제출한 지원서의 모든 개인정보는 동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지원서 제출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납되지 않음
- ※ 동 사업은 선발이 확정된 후 개인별 계약 체결 후 연구 업무가 진행됨

6.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등

7. 신청기간 : 2023년 10월 10일(화)~2023년 12월 26일(화) 17:00 (KST 기준)

※제출 마감 시한을 넘긴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8.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ifes_apply@kyungnam.ac.kr
- <https://ifes.kyungnam.ac.kr/ifes/6653/subview.do> 참조

9. 결과발표 : 2024년 1월 예정 (결과 발표는 사전예고 없이 변경 가능)

- 합격/불합격자 전원 이메일 통보 예정

10. 문의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fes_apply@kyungnam.ac.kr/82-2-3700-0708, 0828

2. 제2기 IFES 북핵 아카데미

“핵 위협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대 주제 아래 9월 21일(목)부터 12월 7일(목)까지 11강에 걸쳐 진행되는 “제2기 IFES 북핵 아카데미” 교육 과정이 10월에도 계속되었다.

강의일정	주제 및 강사
제2강 10월 5일	북한의 핵·미사일 현재와 미래: 핵기술 평가를 중심으로 함형필(전 국방부 북핵대응정책과장)
제3강 10월 12일	핵 민방위 이상민(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제4강 10월 19일	나토식 핵공유와 한반도 핵무장 가능성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제5강 10월 26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군비통제 로드맵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북핵 아카데미는 현장 강의와 온라인 방식을 병행해 운영되고 있으며, 수강생들은 녹화된 강의 영상을 경남대 e-Class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제2강 함형필 교수〉



〈제3강 이상민 교수〉



〈제4강 이수형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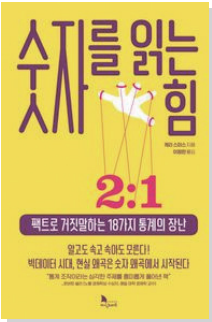


〈제5강 김동엽 교수〉

3. 도서관 소식

추천도서

『숫자를 읽는 힘』



저 자: 게리 스미스 (Gary Smith)

역 자: 이정란

출간일: 2021. 4. 30.

출판사: 지식노마드

쪽 수: 447

(이미지출처: <https://search.kyobobook.co.kr/search?keyword=%EC%88%AB%EC%9E%90%EB%A5%BC%20%EC%9D%BD%EB%8A%94%20%ED%9E%98&gbCode=TOT&target=total>)

리터러시(literacy)는 좁게 ‘문해력’(文解力)으로 번역되지만, “특정 매체 혹은 특정 분야의 데이터나 정보를 섭취해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뜻한다. 게리 스미스의 『숫자를 읽는 힘』은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 등 인간이 빠지기 쉬운 통계의 함정을 재미있게 서술하면서 독자의 통계 리터러시의 힘을 길러준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점은 인간 심리의 기저에 억지로나도 패턴을 읽어 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다.

아침·저녁과 계절 변화의 패턴에 인간이 진화하여 생존에 도움이 되었듯이 인간의 유전자 속에 패턴을 찾으려는 명령이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현상이 패턴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도 인간은 무작위(random)로 일어나는 일에도 패턴을 찾으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패턴이 확률은 아니다. 이를테면, 동전을 던져 앞, 뒷면이 나올 확률은 1/2이지만 각각의 시행은 서로 독립적이며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 동전을 여러 차례 던지면 그 전체는 ‘대략’ 절반씩 나오는 패턴을 보이겠지만 동전이 과거 시행에 대한 기억을 지닌 것은 아니기에 과거 시행 결과가 앞으로의 시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의 무의식적 인지는 이를 그냥 지나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인지적 편향으로, ‘평균으로의 회귀’(regression toward the mean) 현상에 대한 간과이다. ‘2년 차의 저주’가 대표적이다. 데뷔한 첫해에 뛰어난 성적 또는 흥행기록을 이룬 운동선수나 영화감독이 다음 해 또는 다음 작품에 실패를 낳게 된다는 일종의 징크스 현상이다. 그런데 첫해와 두 번째 해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는데도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은 일어나게 마련이다.

『숫자를 읽는 힘』은 통계학에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도 편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모두가 통계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디지털 시대에 어느 정도의 통계 리터러시를 갖는 것은 필요하다. 통계라고 제시하는 숫자들의 이면에 있는 의미를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으며, 일독을 권한다.

〈극동문제연구소 이병철 교수〉

4. 연구소 동정

경남대학교 현장실습형 통일 심화교육 (2023. 10. 12~13)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현장실습형 통일 심화교육”을 진행하였다. 연구소는 경남대학교 재학생들이 북한 사회 및 남북한 관계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경남대 재학생 4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12일에는 경남대 본교에서 이상만 교수, 조진구 교수, 김상범 교수의 주관으로 “북한영상 시청, 탈북박사들과의 토크콘서트” 등을 진행하였다.

13일에는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참관하고, 본 연구소를 방문하여 도서관, 특수자료실, 북한대학원대를 참관한데 이어 박재규 경남대 총장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며 환담하였다. 아울러 주변에 있는 청와대, 북촌마을 등을 방문하였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진행 중에 특히 ‘북한 젊은 층의 일상생활, 군입대 문제, 교육체계, 장마당 운영’ 등에 대해 우리 사회와 비교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발전시켜 대학생들이 남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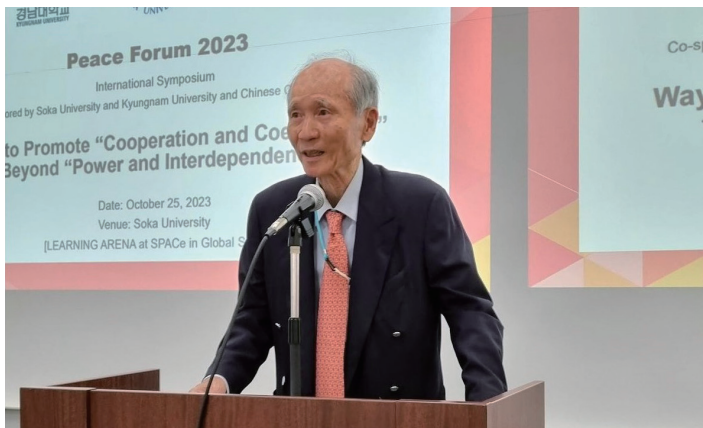


5. 언론 속의 IFES



경남대·일본 소카대·대만 중국문화대 '2023 평화포럼' 개최

송고시간 | 2023-10-25 14:39



'2023 평화포럼'에서 개회사 하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
[경남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대학교는 일본 소카대학, 대만 중국문화대학과 공동으로 '2023 평화포럼'을 25일 개최했다.

일본 소카대학교 글로벌 스퀘어에서 열린 포럼에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 스즈키 마사시 소카대 총장, 자오젠민 중국문화대 사회과학대학장 등 각 대학 교수진이 참여했다.

포럼은 '협력과 상생으로의 길: 힘과 상호의존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열렸다.

박재규 총장은 개회사에서 "국제사회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상호의존성이 상호보완적 협력과 공존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3개 대학은 동아시아 평화 연구 활성화 및 학술교류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중 전략적 경쟁과 영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바 있다.

jjh23@yna.co.kr

* 기사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5100500052?section=search>

5. 언론 속의 IFES

“경남대·일본 소카대·대만 중국문화대 ‘2023 평화포럼’ 개최” 보도현황 (2023. 10. 26. 기준)

연번	분류	보도일자	언론사명	기사 제목
1	통신사 (11건)	10월 25일	연합뉴스	경남대·일본 소카대·대만 중국문화대 ‘2023 평화포럼’ 개최
2		10월 25일	노컷뉴스	올해도 모인 한일대만...경남대·소카대·중국문화대 ‘평화포럼’
3		10월 25일	뉴스원	경남대, 일본 소카대·대만 중국문화대와 ‘평화포럼’
4		10월 25일	뉴스프리존	박재규 경남대 총장, “국제사회 간 상호보완적 협력·공존 발전방안 논의 필요”
5		10월 25일	아시아경제	경남대, 일본 소카대·대만중국문화대와 ‘평화포럼’ 개최
6		10월 25일	CNB뉴스	경남대·일본 소카대·대만 중국문화대, ‘2023 평화포럼’ 공동 개최
7		10월 25일	부울경 CNB뉴스	경남대·일본 소카대·대만 중국문화대, ‘2023 평화포럼’ 공동 개최
8		10월 25일	경남에나뉴스	경남대, 소카대(일본)·중국문화대(대만)와 ‘2023 평화포럼’
9		10월 25일	뉴데일리	경남대, 일본 소카대·대만 중국문화대와 ‘2023 평화포럼’ 개최
10		10월 25일	쿠키뉴스	경남대, 일본·대만과 ‘2023 평화포럼’ 개최
11		10월 25일	한국공보뉴스	경남대, 소카대(일본)·중국문화대(대만)와 ‘2023 평화포럼’ 개최
12	일간지 (6건)	10월 25일	국민일보	경남대·소카대·중국문화대 협력과 상생 ‘2023 평화포럼’ 개최
13		10월 26일	경남신문	경남대, 소카대·중국문화대와 ‘2023 평화포럼’ 개최
14		10월 26일	경남매일	경남대, 소카대·중국문화대와 ‘평화포럼’ 열다
15		10월 26일	경남일보	경남대, 동아시아 평화 구축 ‘2023 평화포럼’ 개최
16		10월 26일	경남연합일보	경남대, 소카대·중국문화대와 ‘2023 평화포럼’ 개최
17	10월 26일	창원일보	경남대, 소카대·중국문화대와 평화포럼	
18	기타	10월 25일	베리타스알파	경남대 일본 소카대/대만 중국문화대와 ‘2023 평화포럼’ 개최
19		10월 25일	대학저널	경남대, 소카대·중국문화대와 ‘2023 평화포럼’

6. 예정사항

제3차 삼청포럼

- 일시: 2023년 11월 24일(금), 19:00
- 장소: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회의실
- 주제: 미·중 전략 경쟁과 한반도
- 발표: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핵은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교재 발간 최종발표회

- 일시: 2023년 11월 6일(월), 14:00
- 장소: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민태홍 대한민국현대미술 작가회장, 경남대학교 명예박사 수여식

- 일시: 2023년 11월 7일(화), 14:00
- 장소: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회의실

중국 산둥대 연구소 내방

- 일시: 2023년 11월 9일(목), 10:00
- 장소: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사업 통합 워크숍

- 일시: 2023년 11월 15일(수) ~ 16(목)
- 장소: 경기도 강화도, 파주 일대

한일의원연맹 공동주최 학술회의

- 일시: 2023년 11월 27일(월) 14:00-18:00
- 장소: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B1 누리홀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 가입안내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 (pedia@kyungnam.ac.kr) 발송

● 연회비 납부

일반회원: 50,000원, 학생회원: 3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재 가 입: 회비 만기일 전까지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만기안내문 발송)
경남은행 570-07-0011980 (예금주: 경남대학교)으로 입금

● 회원의 혜택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와 심포지엄 등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Asian Perspective와 한국과 국제정치, 현대북한연구 를 포함, 보고서 및 소식지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본 연구소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출판도서 구입시 30%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본 연구소 도서관을 방문하여 미국의 공신력 있는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www.nknews.org/pro)의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입문의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
T. 02 3700 0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2 (03053)